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 기도 법회, 교리 탐구

넷째주 일요일 11 시 동지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파도처럼 흔들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

잡아두기란 힘든 일이니,

화살 만드는 장인

곧은 화살 만들 듯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 바로 잡게 하라.

The mind is wavering and restless, difficult to guard and restrain; let the wise man straighten his mind as a maker of arrows makes his arrows straigh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정해년 동안거 결제: “일주문 잠그고 용맹정진하라”

해인총림선원을 비롯한 전국의 100 여 곳 선원은 지난 24 일 ‘정해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일제히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에 들어갔다. 내년 2 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안거 결제에 조계종은 2200 여명의 운수납자들이 화두 참구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일인 지난 24 일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해인총림 방장)는 전국의 수행납자들을 분발토록 격려하는 결제 법어를 발표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세존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채찍을 보이신 곳을 알고자 한다면 오로지 화두를 간절하게 드는 일 뿐”이라며 “만약에 화두를 타파해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천하의 모든 중사들이 외도와 도반이 되겠지만 만일 서로가 인증(印證)할 수 없다면 동토의 납자라고 할지라도 서천의 외도보다도 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종정예하는 또 “외도는 유연과 무언을 떠나서 한마디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사구(四句)와 백비(百非)를 떠나서 한마디 하라는 말”이라 설명하고 “이번 동안거 결제철에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사구와 백비를 떠나서 곧장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도록 삼동한철 동안 일주문을 걸어 잠그고 사관에서 용맹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방장 원명스님도 결제법어를 통해 “공부를 함에 은산철벽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우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은산철벽이 나타날 때까지 매진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번 용맹심을 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보성스님도 결제법어를 통해 “고인(古人)의 말씀에 공부(工夫)와 일은 둘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 백장스님은 하루를 놀면 하루를 굶는다고 하셨고 용성스님과 학명스님은 선농을 병행하셨다”며 “우리 송광사 대중은 시물(施物)을 수용(受用)하고 살면서 한가하게 놀다가 죽어서 소되는 일은 없기 바라는 바”라며 정진을 당부했다.

덕숭총림 수덕사방장 원담스님도 “대중들이 정진을 잘하여 자기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밝히는 일은 자기 생사를 영단하는 길이요,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 길이며, 일체 중생을 건지는 길”이라며 “부디 시은(施恩)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금년 삼동(三冬) 결제에 결단코 참학(參學)하는 일을 마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불총림 백양사방장 지종스님도 동안거 결제법문을 통해 “이번 결제에 임하여 내 마음의 고정된 인식, 상대적인 마음을 완전히 타파해서 험하고 시끄러운 이 사바세계를 일거에 잠재우라”고 설하며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12 월의 경전 공부:

법화경

“제법 실상의 이치 보여줘”

부처님께서 무량외처삼매에 드시니 하늘에서 가지가지 꽃이 뿌러지고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큰 광명을 놓으시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시니 미륵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문수보살에게 그러한 신통변화가 나타난 까닭을 물었다. 문수는 과거의 부처님이 <법화경(法華經)>을 설할 때 반드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났는데 이제 또 그러하니 <법화경>을 설하실 게 틀림없다고 대답한다.

‘서품’에 나오는 이 말은 과거의 부처님이 항상 <법화경>을 설해 왔다 하여 이 경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을 줄여 부르는 말로 범어 이름은 샷다르마 폰다리카 수트라(Sadharmapundarika-sutra)이다. 연꽃이 물에 자라되 물에 젖지 않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뜻을 묘법이라 하여 붙인 말이다. 한역본에

7가지가 있으나 구마라습역의 <묘법연화경>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으며, 달마급다의 역은 <침품묘법연화경>으로 제명되었고, 또 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도 유명하여 이의 3본이 번역이 잘 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예로부터 “뭇 별 가운데 달이 으뜸이듯이 수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으뜸”이라고 한 경의 말을 인용, 이 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주장해 오기도 했다. 이 경을 의지하여 생긴 종파도 여러 개며 중국불교사상 유명한 천태지의(天台智)대사의 천태교관은 <법화경>을 연구하여 수립한 것이다. <화엄경>과 쌍벽을 이루어 <법화경>은 천태교학의 체계를 성립시키고 <화엄경>은 화엄교학의 체계를 수립하여 중국 교학사상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28품으로 되어 있는 전체 경문의 전반 후반을 적문(迹門)과 본문(本門)으로 구분하여 제법 실상의 이치를 천명하였는데 적문에서는 ‘방편품’이 가장 중요하고 본문은 ‘여래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품이다. <법화경>을 실교법문(實教法門)이라 말하면서 삼승(三乘)의 방편으로 설한 권교(權敎)를 모아 구경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대의를 삼는다. 이를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이라 말해왔다.

‘방편품’에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밝힌 대목과 제법실상을 밝힌 10여시설(十如是說)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들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여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오게 해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10여시설을 근거로 하여 천태 지자대사는 일념삼천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여래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이미 구원겁 전에 성불하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정반왕궁에 태어나 출가하고 수도하여 도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 이미 구원겁 전에 성불하였느니라.”

본래성불의 이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이 여래의 지견을 얻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일승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구경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불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천차별 만차별의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의 사구계(四句偈)에서 밝혀 놓은 실상법문을 깨닫는 것이다.

“천지 만유는 본래부터 항상 적멸한 모습 그대로다.(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불자가 도를 닦고 나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佛子行道已 來世得作佛)”

제법이 본래 적멸상이란 이 말씀이 일승의 묘법이다. 결국 고요한 적멸의 모습 그 하나를 보여 주신 것이다.

부처님 제자인 십대제자들이 걸어간 길

사람은 본래 선악이 없으나, 惡과 벗하면 惡하게 물들어

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사리뿔타는 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산보를 하거나 담소를 하고 있었다. 마하목갈라나, 마하카사파, 아니룻다, 레바타, 카차야나, 푸루나, 우팔리, 수붓티, 라홀라, 아난다, 데바닷타 등도 각각 그 무리들과 함께 삼보하거나 담소하고 있었다. 이를 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은 근기와 성정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 마치 젖은 젖과 어울리고 소는 소와 어울리고 똥은 똥물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각각의 큰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의 훌륭한 특징에 대해 말씀했다.

“사리꽃타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니라. 마하목갈라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신통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마하카사파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열한가지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아니룻다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하늘 눈(天眼)을 갖춘 수행자들이니라. 레바타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선정(禪定)에 잘 드는 수행자들이니라. 카차야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의리를 잘 분별하는 수행자들이니라. 푸루나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설법을 잘 하는 수행자들이니라. 우팔리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들이니라. 수붓티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공(空)의 이치를 잘 아는 지혜로운 수행자들이니라. 라홀라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어려운 일을 잘 참는 수행자들이니라. 아난다를 따라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많이 듣고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는 수행자들이니라.”

그러나 부처님은 데바닷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다. “데바닷다와 산보하는 비구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악의 우두머리로서 선근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벗이나 어리석은 이와 더불어 지내지 말라. 항상 착한 벗과 지혜로운 이와 더불어 사귀어라. 사람은 본래 선악이 없다. 하지만 악한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뒤에 반드시 악의 원인을 만들어 나쁜 이름을 천하에 퍼뜨리게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데바닷다를 따르던 30 여명의 수행자들은 부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용서를 구했다. 부처님은 그들이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도록 참회를 받아주었다.

- 중일아함46 권 목우품(牧牛品) 제3 경 -

부처님의 10 대 제자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갈라나, 두타제일 가섭, 다문제일 아난다, 천안제일 아나울, 지계제일 우팔리, 논의제일 가전연, 설법제일 부루나, 해공제일 수보리, 밀행제일 라홀라 등이다. 이 10 대 제자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최초의 제자인 교진여의 이름이 없는 대신 ‘해공제일 수보리’가 거론된 것으로 보면 대승불교 초기에 이르러서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10 대 제자들이 ‘각각의 무리들을 이끌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이 누구를 의지해 수행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수행자들은 교단의 규모가 커지자 각기 존경하는 상좌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행과 교화활동을 했다. 부처님과 떨어져 살면서도 교단의 단일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의 법(法)과 율(律)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동의 법과 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데바닷다가 교단을 분열시키고 배신의 길을 걸었던 것이 그 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일이 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교각스님 1200 년만의 귀향”

신라 왕자로 태어나 출가 후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金橋覺, 696~794) 스님이 중국 안휘성 구화산서 1200 여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돌아온 김교각 스님은 중국정부가 직접 조성한 목조입상으로 높이 2.5m 규모.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지관스님(교문)을 비롯해서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범종단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김교각 지장왕보살

불안법회 봉행위원회'는 지난 23 일 오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 한국불안 한중합동법회'를 갖고, 이틀 전인 21 일 중국 구화산서 이운된 김교각 스님 입상을 봉안했다. 한중 수교 15 주년을 기념하고 2007 년 한중교류의 해를 맞아 열리는 이 날 '김교각 불안법회'에서는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가 증명법사로 법어를 내렸다.

이번 김교각 스님 이운.불안법회에는 중국정부 종교문화계 수장인 엽소문(葉小文) 종교사무국장 등 중국불교계 대표자 50 여명이 함께 방한, 김교각스님의 봉안을 기념했다. 우리측은 법전 중정예하를 비롯,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스님,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오영교 동국대 총장, 김장실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이해봉 국회정각회장,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편 20 일 오후 2 시(한국시각 오후 3 시) 중국 안휘성 시주시에 있는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중국 구화산 일대 스님 1000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중국측 중진스님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스님을 비롯한, 영담, 지준, 광조스님 등이 '김교각 지장보살 한국봉안'을 위한 공송(恭送)법회를 봉행했다.

글로벌 승려

1300 여년 전 '세계적' 한국 스님들

김교각스님, 천년간 韓中 추앙, 정중무상선사 티베트까지 명성

중국을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각국 유명 관광지에서 한글 안내판과 팜플릿을 보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다. 10 여년 전에 구화산을 처음 찾았을 때 안내판에 개발새발 써놓은 한글은 함께 간 우리 일행들에게는 기분좋은 충격이기도 했다. 지장성지의 주인공인 김교각 스님이 신라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대성지 중에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한국에서 우리뿐이겠는가? 한반도 유사 이래로 많은 승려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한다. 대부분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고 떠난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더 좋은 일이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는 37 년동안 당나라에 머물다가 귀국하였다. 40 년의 세월이면 현지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일부터 귀국한 이유는 결국 선종을 신라에 전하기 위한 원력 때문이다. 의상대사는 9 년 정도 화엄학을 공부한 후 귀국했다.

하지만 '글로벌 승려'가 당시에 많았다. 서안(西安) 홍교사에는 원측(圓測, 612~696)법사의 사리탑이 남아있다. 유명한 역경가 현장법사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나 신라인이라는 이유로 본토출신인 규기법사에게 밀려 스승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던 것 같다.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자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들어가 강당 문밖에서 도강을 했다고 한다. 이후 서명사(西明寺)에서 일가를 이룬 그를 신라 신문왕이 귀국시키고자 하였으나 측천무후까지 나서 정중히 거절하게 한 세계적인 인재가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열반했다.

정중무상(靜衆無相, 684~782)선사는 처적(處寂)선사 문하에서 수행하여 법을 이었고, 이후 티베트까지 이름을 떨친 최초의 신라승려이기도 하다. 이 시대 대표적 논객인 조용현 선생에 의하면 구산선문의 개창자들이 집중적으로 마조문하에 법맥을 대려고 한 이유는 마조도일의 스승이 무상선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라인으로서는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설(說)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어쨌거나 그는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고 중국 땅에서 열반하였다.

구화산에서 천년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왕족출신 김교각스님은 가장 성공한 '글로벌 승려'라고 하겠다. 생전에도 열반 후에도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신라와 중국이 둘이 아님을 몸소 실천하였고, 중생과

보살이 돌이 아님을 수행을 통해 만인에게 증명했기 때문이다. 21 세기 서울 봉은사에서 등신불 봉안법회까지 열릴 정도였다. 그의 출세는 물론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고 모두를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지중한 까닭이다.

“불조께서 출세(出世:세상에 나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함이니라.”

세 가지 진리의 의의: “탐착서 벗어나야 완전한 평온”

부처님께서 진리로 확인하고 선포하여 일생 내 거신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진리, 즉 삼법인 혹은 사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이를 논리적 귀결에 따라 차례대로 말해보면,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변한다.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와 현상에는 영원불변하는 어떠한 실체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영원케 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갈망과 탐착을 부르고, 그 갈망과 탐착이 고통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치고 갈망과 탐착에서 벗어나야만, 완전한 평온의 행복이 있다’라고 정리 할 수 있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 중에 그 어떤 것도 영원불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우유는 변하여 버터도 되고 치즈도 된다. 버터나 치즈에 있어서 우유는 인(因)이고 습도나 온도 등 발효조건은 연(緣)이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이렇게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버터나 치즈는 분명 인연에 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습도나 온도 등 조건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다. 조건이 변하면 결과는 따라서 변한다.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독존할 수 없고, 자존할 수 없고, 항존할 수 없다. 결과로서의 현재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예외없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성립한다. 즉, 일체의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소유하거나 영원케 할 대상이 없다는 말이다. 불변하는 대상이 있어야 소유든 영원하게든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그 무엇을 소유하거나 영원케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은 소유와 영원으로 압축된다. 가지고 싶은 욕망과 보전(保全)하고자 하는 욕망 두 가지이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와 현상이란 본래 도무지 없기에 우리의 이러한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잠시 잠깐 소유한듯하지만 순식간에 변하면서 사라져 버린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찰나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거나 보전할 수도 없기에 고통을 겪는다. 또한 얼핏 성공한듯해도 그것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사라져 버릴 때 역시 우리는 괴롭다. 이러한 것이 이 세계와 인생의 참모습이다.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찰나찰나 변하면서 사라지기에 결코 소유하거나 영원케 할 수 없음이 이 세계와 인생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소유할 수 있고 영원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을 어리석음(無明)이라고 한다.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괴로움을 이기고 청정함(涅槃)에 이르게 된다.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라고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괴로움을 이기고 청정함(涅槃)에 이르게 된다.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는 괴로움이다’라고 지혜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괴로움을 이기고 청정함(涅槃)에 이르게 된다. <법구경>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길은 지혜다.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세속적 쾌락도, <우빠니샤드>가

말하는 고통도, 모든 도덕가들이 말하는 선행(善行)도, 유신적(有神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은총도 아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지(無知)이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지혜일 수밖에 없다. 삼범인은 깨달음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윤영해 /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교수

"亞서 사회.정치 변혁의 선봉에 나서는 승려들" < AWSJ >

미얀마 민주화운동에서 확인됐듯이 아시아 각국에서 승려들이 사회·정치적 변혁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AWSJ)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비폭력과 윤희설에 기반을 둔 불교는 이슬람교나 기독교와 달리 부당한 통치 행위에 항거해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교리상의 '명령'을 갖고 있지 않지만 최근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가 정치운동의 강력한 힘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과 사안에 따라 동기가 다르고 정치운동을 이끄는 불교 분파가 상이하지만 어떤 경우든 불교가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주도한다는 점은 같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려는 티베트에서부터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힌두교 소수인종으로 구성된 타밀반군에 대해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면 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른 스리랑카의 '과격 민족주의' 승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빈곤과 부정을 퇴치하고자 하는 태국 불교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술락 시바락사는 불교가 "(썩은) 사회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참선과 내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현실도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쿤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20세기 후반 현대화의 충격과 전쟁이 많은 종교를 정치세력화한 시기에 아시아에서도 불교가 사회·정치 변혁을 주도하는 경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가톨릭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해방신학'이 싹텄고 무슬림은 더욱 정치세력화했으며 불교도 일반적으로 조용한 교리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 변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한편 지난 9월 미얀마에서 승려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주요 요인은 사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들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중의 시주에 의존하는 승려들로서는 대중이 빈곤해짐에 따라 줄어드는 시주로 배를 곯게 되고 민주화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소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해석이다.

군사정부의 탄압을 피해 현재 태국과의 접경지대 안가에 은신하고 있는 한 승려는 "국민이 굶주리면서 어떻게 사원에 시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들(국민)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신문은 또 대대적인 검거와 협박에 종종 쉽게 굴복하는 세속의 운동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폭발한 불교 운동가들은 엄청난 '지구력'을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지속력은 불교 성직자들이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녀를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불교 운동가들은 또 다소 느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뭉쳐 오래 지속되는 지지자 네트워크의 덕을 보기도 한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법회소식 NEWS

- 12월 22일은 일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불국사에서서는 11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때 동지 기도 및 팔죽 공양을 합니다. 동지기도에 많이들 참석 하셔서 맛있는 팔죽도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도 보내십시오.
- 11월 4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법당에서 가진 “불국사 후원회 특별법회”에서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각스님의 법문, 불자 가수인 머루와 다래 법사님의 사회 및 공연, 박으뜸 불자님의 거문고 공연,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고 성공적인 법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국사 후원회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전법기도 법회가 있는 매월 3째주 일요일은 불국사 총무이신 “보광 이진욱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리탐구” 시간입니다. 교리탐구 시간은 신도님들 모두가 참고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므로 기쁘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축하드립니다. 불국사 고경환 불자님의 장녀인 고훈주 불자님이 2007년 “제 5회 재미 한국불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약 100개의 한국 사찰에 소속된 많은 청소년 불자들이 신청하고 이중 11개의 사찰에 소속된 불자가 2007년 제 5회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12월 다섯째주인 12월 30일 법회는 쉽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홀해로 2551번째 맞이하는 성도재일을 입니다.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어 사생자부, 과거현재 미래와 우주의 대스승이 되신날 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도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철야 용맹 정진을 합니다. 참고로 성도재일은 음력 12월 8일이고, 양력으로는 1월 15일 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성도재일 철야 정진에 참가하시길 바라면서 정진 날짜는 둘째주 토요일 밤으로 정했습니다. 철야정진은 1월 12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이 일요일 아침 6시에 아침 예불과 함께 회향 합니다. 성도재 철야 정진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0월 1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15번 정사생 박성철, 244번 병자생 한경아, 245번 병자생 한상윤, 288번 정유생 전삼석, 289번 계묘생 보연화 오윤자, 290번 계해생 전소강, 291번 무진생 전우혁, 323번 임진생 노성열, 324번 정유생 호법성 신정례, 325번 갑자생 노재준, 326번 정묘생 노재민, 327번 정해생 윤윤석, 328번 정유생 임명오, 329번 무술생 김미자, 330번 계해생 임재현, 341번 신묘생 보광원 김순자, 342번 기미생 보현 사공지웅, 343번 지혜월 사공지현, 351번 을미생 백석현, 352번 경신생 백영미, 353번 임술생 백준호, 354번 기해생 이종준.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화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 10월, 11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신사생 박승광, 갑자생 조민우, 계축생 서영삼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